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. 6. 10.(수)

김민석 국무총리, 경기도 자살예방센터 방문, 현장 대응체계 점검

- 김총리, 경기도 자살위기대응 현황 점검 및 자살예방센터 종사자 격려, 자살예방은 국정 최우선 과제라고 거듭 강조

- 김민석 국무총리는 6월 10일(수),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도 자살예방센터를 방문하여 경기도 자살예방정책 추진현황과 자살위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하였다.
 - 이번 방문은 최우선 국정과제인 자살예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,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.
- 경기도는 작년 12월부터 자살예방관(부지사) 주도로 마련하여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중인 경제적 위기 해소방안과 청소년 마음안전망 강화대책 등을 보고하였다.
 - 이에 김 총리는 “고독은 자살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, 고독해서 자살하고 고독하게 자살한다고 할 수 있다”. “사회복지가 잘 보장되어 있는 국가도 자살이 발생하는 것처럼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심리적 안전망 역시 중요하다”고 강조했다.
 - 아울러 “자살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로, 경기도가 계속 성과를 낸 것처럼 선도해 주길 바라며, 정부도 고독과 자살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- 또한 김 총리는 현장에서 자살시도 등 긴급상황에 대응하고 있는 자살예방 센터 종사자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, 정부 역시 국민 누구도 혼자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.
- 정부는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소속 「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」를 중심으로 자살예방정책이 지역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, 현장의 경험과 개선사항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한사람이라도 더 많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.

※ 우울감이나 극단적인 생각으로 힘들거나,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자살예방 상담 전화 ☎109, 청소년 상담 전화 ☎1388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	책임자	과 장 이효식 (044-200-6369)
	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	담당자	서기관 정윤종 (044-200-6385)